

# 나훔 개관

## 1. 개요

나훔서는 앓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중심으로 하는 책입니다.

- 잔혹한 강대국 앓수르가 자행한 죄악(피를 흘리고, 거짓과 폭력으로 주변 민족을 압제했던 그들의 교만과 잔학성)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됩니다.
  - 나훔서는 단순한 정치적 예언이 아니라,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구속사적 사건으로 바라봅니다.
- 

## 2. 저작 연대

- 나훔은 니느웨 멸망(주전 612 년)을 예언합니다. 그러므로 이 책은 그보다 조금 앞선 시기(주전 660-630 년 사이)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
  - 남유다 왕국의 요시아 초기, 또는 므낫세 말기 즈음입니다.
- 당시 앓수르 제국은 외적으로는 최강국이었으나, 내부적으로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.
- 

## 3. 저자

- “나훔(Nahum)”이라는 이름은 “위로하는 자, 위로”라는 뜻입니다.
  - 엘고스 사람이라 소개되지만(1:1), 그의 출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.
  - 그 이름처럼, 나훔의 메시지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,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.
-

## 4. 기록 목적

- 니느웨의 교만과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, 주변 국가들, 특히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전함.
-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악이 결국은 꺾이고,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도래함을 선언하기 위함.

## 5. 단락 구분

구분	범위
1:1-15	하나님의 공의와 능력, 그리고 유다에 대한 위로
(하나님은 진노하시되, 피난처가 되심)	
2:1-13	니느웨의 멸망 예고
(성벽 붕괴, 파괴의 묘사, 앗수르의 몰락)	
3:1-19	앗수르의 죄목 열거와 멸망의 비극
(피의 성, 음행, 거짓, 조롱당하는 왕)	

## 6. 중심 메시지

“여호와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.” (나 1:7)

“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...” (나 3:19)

-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,
- 동시에 자기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.

나훔서는 “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. 죄악이 넘칠 때, 그분은 반드시 공의로 응답하신다”는 선언이며, “그분께 피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풍성하다”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.

---

## 7. 신학적 이슈

### 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

-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회개하여 용서받았지만, 나훔서에서는 끝내 교만과 폭력으로 돌아선 니느웨에 대한 진노가 선포됩니다. → 하나님의 인자와 진노는 함께 존재하며, 회개 없는 자에게는 인내마저 심판으로 전환됨을 드러냅니다.

### ②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

- 나훔서는 단지 영적 메시지가 아니라 앗수르 제국의 실제 멸망 사건을 예언합니다.

→ 이는 하나님이 열방의 역사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.

### ③ 유다를 향한 위로

-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: “이제는 다시는 악인이 네 안으로 지나가지 아니하리라.” (1:15)
- 이는 단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,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보호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.

---

## 8.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나훔 해석

### 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

- 하나님은 국가와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.
- 이는 개혁주의의 섭리론과 깊이 연결됩니다. → “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.”

### ② 심판과 은혜의 균형

-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강조합니다.

- 나훔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인자, 심판과 위로가 균형 있게 선포되는 책입니다.

### ③ 신정론(神正論)과 정의

- 하나님이 잔인한 앗수르의 폭정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점에서, 고통 받는 이들에게는 정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신학적 위로를 줍니다.

### ④ 남은 자의 위로

- 심판은 전면적이거나, 하나님은 피하는 자, 신실한 자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. 이는 개혁주의의 남은 자 신학(remnant theology)과 맞닿아 있습니다.